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4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대출 막히자…5대 은행 예대율 2년 만에 최저 수준 '뚝'

매일경제 https://zrr.kr/XxgcGt

5대 은행의 올 1분기 말 예대율은 평균 96.0%로, 2024년 1분기 말(9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런 흐름은 대기성 자금 유입 등에 예금 잔액이 견조하게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결과로 풀이

지방은행 기업대출 외형 성장에도...제조업 비중 뒷걸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i7nRyn

지방거점은행 6개사의 지난 10년간 기업대출금 업종 비중(평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대출은 13.2%p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6.8%p 증가
제조업·첨단산업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

금융그룹, 벤처모펀드에 꽂혔다…판 커지는 모험자본

블로터 https://zrr.kr/dYoDoe

생산적 금융을 둘러싼 금융그룹의 경쟁 축이 벤처모펀드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단순 대출을 넘어 미래 산업과 성장 기업을 선점하는 투자 플랫폼을 확보하는 효과

우리은행, 美대형 발전소 1.1조 자금 재조달 금융주선

뉴시스 https://zrr.kr/IlqNjp

우리은행이 미국 대형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주선하며 북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우리은행은 2022년 해당 사업 초기 금융 지원 과정에서도 1.5억달러 자금을 모집… 이번 재조달 과정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총 2.3억달러 대출을 총액 인수하며 거래 마무리

500억원 거래해도 수수료 0원… 메리츠·신한·토스 '제로 전쟁' 재점화

조선비즈 https://zrr.kr/SNREIg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 확보와 휴면 고객 복귀를 위해 파격적인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에 다시 돌입
메리츠·신한·토스증권 등은 월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전면 면제, 미래에셋·대신증권 등은 특정 기간 0% 수수료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어린이 주식시장' 커진다…부모 돈으로 사준 주식 '비과세법안' 재시동

뉴스1 https://zrr.kr/RekhM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니어 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부모에게 투자금을 지원받아 주식투자 시 10년간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하나, 제도 도입 시 세부담이 추가로 줄면서 미성년자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 기대

에이플러스에셋 지분 작년比 2배… 보험업권, 행동주의 반격 나섰나

머니투데이 https://zrr.kr/DumJAg

얼라인은 보험사들이 보유한 에이플러스에셋 지분을 10.15% 수준으로 파악… 지난해말 기준 4개 보험사 지분율은 5%를 밑돌았으나 올들어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한 셈
행동주의펀드가 보험사가 아닌 전체 보험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형 GA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백기사로 나섰다는 해석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단계적 추진 실손의보 손해율에 악재 '우려'

보험신보 https://zrr.kr/u0OYUg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세부 운영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보험업계는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 제한에 집중, 그동안에는 90일까지 가능했던 처방 일수가 7일로 줄어드는 것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토큰자산 편입 20% 제한"…美당국-블랙록 '대립'

이데일리 https://zrr.kr/UBQvLj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토큰화 자산에 2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금융당국 조치에 대해 블랙록이 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며 당국과 대립
대신 블랙록은 경직된 한도 대신 원칙 기반의 분산 프레임워크를 주장… 이 방식은 발행사가 임의의 한도보다 위험 특성에 따라 준비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금융권 올라탄 두나무의 '기와체인'…'한국판 베이스' 될까

뉴스1 https://zrr.kr/Mb7YJh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권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신사업에 속속 도입
기와체인도 규제 친화성을 무기로 초반 파트너십을 금융권 위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베이스'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